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세계사) 영역 분석

## 1. 출제 경향

### \* 출제 경향 특징

1. 편중된 단위 없이 단위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2. 서양사의 출제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사의 비중이 낮았다. 이외에도 인도, 일본, 이슬람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3. 평이한 문항의 경우 기존 시험이나 EBS 연계교재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것들이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4. 잘 다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세부적인 연표가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되어 변별도는 높지 않았다.
5. EBS 수능 교재에서 자료를 직접 인용한 문항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사탐 영역의 세계사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선지들이 평이했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위권을 나누기 위한 고난이도 문항의 경우 평소 다루지 않던 지역과 주제에서 세부적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변별도는 높지 않았다.

문항 형식은 엽서, 수행평가, 사료, 지도, 신문, 사진, 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단위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지만 서양사가 12문항으로 동양사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난도 문제가 모두 서양사로 구성되어 있어 서양사 학습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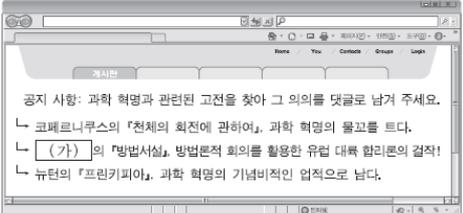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로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자료를 직접 인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체감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난이도

###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세계사	다소 어려움	비슷함

세계사의 경우 다소 평이했다고 평가되는 2017학년도 수능과 비슷했으며,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2017학년도 문항의 전체 난이도가 평이했던 것을 의식하여 난이도는 매우 높고 변별도는 낮은 형태의 문항을 두 문항 정도 배치시켰다.

4번	13번										
<p>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공지 사항: 과학 혁명과 관련된 고전을 찾아 그 의미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과학 혁명의 물꼬를 트다.</li> <li>↳ (가)의 「방법서설」, 방법론적 회의를 활용한 유럽 대륙 합리론의 걸작!</li> <li>↳ 뉴턴의 「프린키피아」, 과학 혁명의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남다.</li> </ul> <p>① 백과전서를 편찬하였다.          ② 연역적 탐구 방법을 중시하였다.          ③ 노름 오르기능(신 기관)을 저술하였다.          ④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⑤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독일 관념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p>	<p>13. 밑줄 친 '조약' 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다. 오랜 전쟁 끝에 조약이 체결되어 칼뱅파가 공인받으면서 종교적 평화가 찾아왔다.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인정되는 등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에서는 새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가)</td> <td>(나)</td> <td>(다)</td> <td>(라)</td> <td>(마)</td> </tr> <tr> <td>95개조 반박문 게시</td> <td>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td> <td>낭트 칙령 발표</td> <td>청교도 혁명 시작</td> <td>크롬웰의 오국경 취임</td> </tr> </table> <p>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p>	(가)	(나)	(다)	(라)	(마)	95개조 반박문 게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	낭트 칙령 발표	청교도 혁명 시작	크롬웰의 오국경 취임
(가)	(나)	(다)	(라)	(마)							
95개조 반박문 게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	낭트 칙령 발표	청교도 혁명 시작	크롬웰의 오국경 취임							

4번 문항의 경우 기존 고난이도 문항의 소재로 자주 출제되던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단원의 내용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했다. 다만 시기가 아니라 인물의 대한 설명을 물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13번 문항은 낭트 칙령과 청교도 혁명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시기를 물었다. 청교도 혁명과 베스트팔렌 조약의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정답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 시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사건들의 년도를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23년 10월 10일 - 12일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23년 10월 10일 - 12일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23년 10월 10일 -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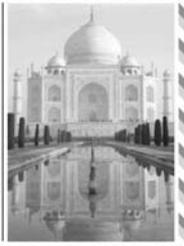
① (가) - 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확대되었다.  
 ② (가) - 두아 일지 등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나) -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나) - 프레스보르의 보르소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⑤ (가), (나) 사이에 두 차례의 발칸 전쟁이 일어났다.

이외에도 20번 문항은 러시아 혁명을 소재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일 전쟁을 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예상된다. 답지 또한 논리적 인과 관계가 없는 두 전쟁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답지 선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2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24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95
5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41
7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89
8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63
9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78
1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158
1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142
12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67
14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131
15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139
16	자료 상황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115
17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세계사	178
19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세계사	143~144

##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3번	EBS 수능특강 세계사 95쪽 3번
<p>3. (가) 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p> <div data-bbox="327 403 778 672"> <p>POSTCARD</p> <p>사랑하는 △△야, 앞에 보이는 건축물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어제 엄마가 직접 가 보았다. 이곳은 (가)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아내를 기리기 위해 지은 순백의 대리석 무덤이란다. 다음에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너와 함께 보고 싶구나. - 2017년 ○월 ○일 엄마가 -</p>  </div> <p>① 간다라 양식이 나타났다. ② 카스트 제도가 출현하였다. ③ 마라타 동맹이 반란을 일으켰다. ④ 아소카 왕이 산치 대탑을 세웠다. ⑤ 칼리다사가 희곡 샤쿤탈라를 지었다.</p>	<p>03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data-bbox="837 403 1324 672">  <p>이 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은 이슬람 양식과 힌두 양식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분수 정원, 돛 지붕, 아치 입구, 첨탑 등은 이슬람 양식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고, 묘당 내부의 연꽃 문양은 힌두 양식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p> </div> <p>① 간다라 양식의 불상 제작이 유행하였다. ②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이 주로 만들어졌다. ③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④ 일상생활에서는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⑤ 인도 고유의 특색을 강조한 굽타 양식이 등장하였다.</p>

6월 모의평가 문항 15번	EBS 수능특강 세계사 139쪽 2번
<p>15.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data-bbox="367 974 678 1344"> <p>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p>  <p>■ (가)의 식민지 ▨ (나)의 식민지</p> </div> <p>① (가) -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② (가) -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나) - 줄루 왕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④ (나) - 헤레로 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⑤ (가), (나) - 팽창 정책을 추진하며 파쇼다 사건을 일으켰다.</p>	<p>02 (가), (나) 국가 사이에 있었던 갈등 사례로 옳은 것은?</p> <div data-bbox="869 974 1181 1332">  <p>■ (가)의 식민지 ▨ (나)의 식민지</p> </div> <p>①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하였다. ② 앙카라 근처에서 전쟁을 치렀다. ③ 발트 해를 둘러싸고 북방 전쟁을 벌였다. ④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다. ⑤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레판토 해전을 벌였다.</p>

##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 1) 상위권 학습 전략

최근 출제경향은 고난이도의 경우 정확한 연도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자주 출제된다. 그러므로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 시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핵심 사건들의 연도를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서양사의 근현대 단원은 사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각 사건의 의미 뿐 아니라 선후 관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변별력 확보를 위한 3개 정도의 고난이도 문항을 제외하면 주요 개념과 흐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다수이다.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교재 등을 활용하여 세계사의 주요 사건과 지역별 흐름을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